‘직선제’ 도입 11월 종회서 성사될까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은 9월 27일 연석회의를 열고 제207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제207회 정기회는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열리며, 특히 개회와 함께 하반기 중앙종회 의장 선출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임시종회에서 이월된 종헌 · 종법 제개정 건과 함께 2017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예산안 승인도 다뤄진다. 종헌 · 종법 제개정안에는 직선제 특위가 상정 예정인 총무원장 선출 직선제안과 종헌종법특위가 지난 임시회에 상정, 이월된 총무원장 선출 추첨제안이 맞붙을 예정이다. 또 소청심사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등 각종 인사안건도 처리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출협 제13회 불교출판문화상 공모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가 ‘제13회 불교출판문화상’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행한다.

조계종과 불출협은 최근 ‘제13회 불교출판문화상’ 선정 계획을 확정, 10월 14일까지 출품작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불교출판문화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불교출판문화상 공모 대상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불교관련 도서에 한정 된다. 불교를 주제로 한 모든 분야의 저서 및 역서가 응모 가능하며 다른 기관에서 선정된 도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불교출판문화상 공모전에서 올해의 불서로 선정된 10종 중 대상 1종에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 우수상 2종에는 상패와 상금 각 400만원이 수여된다. 또 올해의 불서로 선정된 그 외 7종 도서에 대해서도 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불교출판문화상 응모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며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11월 말 발표 예정. 김주일 기자

〈바로잡습니다〉 본지 1115호 3면의 “最古 금속활자본은 증도가, 송광사서 간행” 기사 중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박상국)’을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으로 바로잡습니다.

조계종 교육원 제1회 학인토론대회

미래의 가전연, 法의 ‘舌戰’ 펼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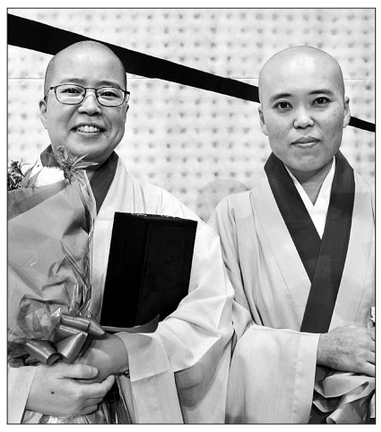
〈논의 제일〉

결선 12팀, ‘존엄사’ 찬반 토론
학인 스님들 전문적 식견 ‘눈길’

봉녕사 ‘선재선재’ 팀 우승 차지
“불교 · 사회 접목 공부에 보람”
설정 스님 “한국불교 희망봤다”



제1회 학인토론대회에서 참가한 스님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우승의 영예를 차지한 선재선재팀

“춘다의 공양을 받았던 부처님은 당신이 죽을 것을 알았지만, 자신을 점검하며 이를 받아들였다.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불교적인 일이다.” 〈해인사 승가대학 ‘가야산 호랑이’ 팀〉

“현재 존엄사를 위한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 자신보다는 가족 결정권이 우선되는 상황이다. 불살생계를 내세우고 있는 불교는 임종 순간까지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봉녕사 승가대학 ‘선재선재’ 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존엄사법)을 놓고 학인 스님들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9월 28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일원에서 제1회 학인토론대회 ‘토론의 힘-동몽이상(同夢異想)’을 개최했다. 오전 예선과 오후 결선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대회는 총 11개조, 22개 팀이 참가했으며, 12개팀이 결선에 올라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2팀씩 6개조 나뉘어 진행된 토론은 약 2시간 30분가량 이뤄졌으며, 전문 심사위원들이 토론에 대한 점수를 채점했다.

결선 주제는 존엄사법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논쟁들을 불교적으로 살피고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펼치는 것이었다. 학인 스님들은 자신이 맡은 입장에 서서 상대의 논리를 비판하고 설득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몇몇 참가팀들은 높은 전문적 식견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찬성 입장을 맡았던 ‘해인삼매(해인사 승가대학 2팀)’는 “불교적 생사관으로 보면 임종 직전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위적 생명 연장은 맑은 의식 상태를 보전해주지 못한다. 존엄사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한달에 1천만 원가량 청구되는 의료비용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환자 가족에게 소요되며,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반대 측은 현재의 연명치료 중단은 경제 비용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계층들에게는 합법적인 살인을 용인해주는 행위이며, 의료 분배 문제는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의료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봤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전대회 우승팀’은 “다른 사람의 혜택의 문제를 당면 환자나 의사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사는 어떻게든 환자의 존엄을 지키며 치료하는 사람이지, 병실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는 착오있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완화치료에 관심을 갖지 않는 종단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봉녕사 승가대학 ‘선재선재’는 “존엄사를 입법화하기 보다는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통해 사회복지적 문제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영국과 미국에서 연명 의료 중단 후 호스피스로 전환되는 비율은 96%이다. 하지만 한국은 21개 기관 호스피스 지원에서 4개 지원으로 축소됐다. 현재 암환자 100명 1개의 병상만이 확보된다. 그나마 호스피스 전문 기관의 1/3이 기독교계다. 불교는 단 한곳도 없다”고 비판했다.

열띤 토론 끝에 첫 토론대회의 대상(총무원장상) 수상자로 봉녕사승가대학 ‘선재선재’ 팀 보인, 진욱 스님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상(교육원장상) 수상자로는 해인사승가대학 ‘해인삼매’ 팀이 이름을 올렸다. 결선 진출 10팀에게는 우수상이 수여됐으며, 예선 참가팀에게도 원력상이 주어졌다.

대상 수상자 ‘선재선재’ 팀 보인 스님은 “토론대회 준비 전에는 존엄사를 찬성했지만, 반대입장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다”면서 “불교와 사회문제를 연결시켜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진욱 스님은 “오늘의 결과는 학장 스님부터 도반 스님들까지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가능했다. 수시로 의견을 주고, 점검해주는 등 많은 지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대회에서는 조계종 원로의원 인환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종단 원로 · 중진 스님들이 참여해 학인들의 토론을 관전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설정 스님은 “최근 종단을 비판 · 조롱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오늘 학인 스님들의 토론을 보며, 한국불교의 희망을 봤다”면서 “좋은 토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식이 천박해서는 안되며, 이성적 안목도 탁월해야 한다. 오늘 토론대회는 한국불교의 희망을 넓히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우희종 교수에 법적 대응 들어가

교구본사주지협 · 중앙종회 등 연이어 연대 입장 밝혀

종회서 입장문 채택, 특위구성 논의
명예훼손 사찰 · 스님 소송 동참

우희종 서울대 교수의 조계종 비판 발언으로 인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불교 각계에서 우 교수에 대한 성명이 나오는 가운데 조계종 교구본사와 중앙종회도 연대해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정념)는 9월 28일 김제 금산사에서 4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총무원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우희종 교수의 〈쇼! 개불릭〉 파문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고 교구본사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지현 스님은 “우 교수가 팟캐스트에 출연해 종단을 기망하고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책을 팔아 스님들에게 고기를 사주겠다는 등 막말로 스님들과 불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관계자는 “당사자나 단체들을 중심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빠르면 9월 내 소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파문 확산 후에도 팟캐스트 ‘쇼! 개불릭’을 통해 불교 폄하 발언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의 대응도 진행할 것임을 전했다.

이에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우 교수의 막말을 좌시할 수 없다”며 교구본사가 연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조계종 중앙종회도 연대대응과 함께 입장문을 11월 종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중앙종회는 11월 정기종회에서 호법특위 등 불교외호 조직 구성도 논의키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은 9월 27일 연석회의에서 우희종 교수가 출간한 ‘쇼! 개불릭 씹고, 뜯고, 맛보는 종교이야기’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스님들은 “근거없는 내용이 사실처럼 회자되고 있고, 불교에 대한 실망감만 키우고 있다. 이 시점에서 불자들과 일반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종단 안팎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뜻을 모았다.

중앙종회는 지난 용주사 사태 당시에도 우희종 서울대 교수의 발언 등으로 서울대 총장을 찾아 항의한 바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서울대 항의방문과 명예훼손 법적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종회의장 성문 스님은 “이번 사태 외에도 여러 가지 불교 폄훼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장기적으로 불교를 외호하기 위한 호법특위 구성과 제재방안 등도 생각해볼만 하다”며 종회에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선학원 ‘승려법’ 개정 두고 갈등 확산

7일 선학원서 이중승적 방지 조치…선미모 반발

선학원(이사장 법진)의 승려법과 계단법 개정을 두고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이하 선미모)은 최근 “지난 9월7일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가 ‘이중승적 방지’를 목적으로 승려법과 계단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로 의결한데 대해 ‘선학원이 사실상 탈종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승려법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

선미모 측은 “개정된 승려법에 명시돼있는 기성종단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타종단이나 기성종단에 조계종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의혹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학원 내 분원장 스님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선학원은 9월 7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승려법’과 ‘계단법’ 일부 조항을 개정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승려법’에 △타종단 승적 보유자가 재단의 승적을 취득했을 경우 해당 종단의 승적을 포기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종단 승적 보유자가 재단 승적 취득을 승인받고도 30일 이내에 종단 제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학원 승적을 자동 실효토록 하는 것이다.

선학원 측은 “〈승려법〉 개정안은 기존 선학원 소속 창건주와 분원장 및 도제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사찰을 신규등록하거나 창건주 지위의 승계나 위임시 타종단의 승적으로 선학원 취적을 막겠다는 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갈등 확산 국면에서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선학원과의 갈등 관계를 풀기 위해 다방면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www.eunhae-sa.org

팔공산 은해사 창건 1207주년 개산대재

만등불사 · 중악(中岳) 은빛 작은음악회

아미타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미타도량 은해사는 신라 헌덕왕 원년(서기809년) 혜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신 지 1207주년이 되었습니다.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스님들의 선맥(禪脈)이 이어온 은해사 대법회에 교계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개산대재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무한한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기2560(2016)년 10월

■ 차량운행 동대구역 지하도(오전9시)→하양→은해사
남부정류장(오전9시)→경산→하양→은해사
포항역(오전8시30분)→영천→은해사간 차량 운행합니다.
■ 문의 종무소 (054)335-3318 원주실 (054)335-5220
제10교구 각 말사
■ 주소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은해사

개산대재 대법회

• 일시 : 10월 15일 (토요일, 음9.15)
• 장소 : 극락보전 앞

오전 9시30분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재
11시 육법공양, 개산법요식
오후 12시30분 중악은빛 작은음악회
6시 만등불사 점등식

만등불사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을 널리 펼치는 연등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며, 소원이 이뤄지는 뜻깊은 공덕입니다. 우리 모두 동참하여 세세손손 복을 누리세요.

• 동참금 : 만등불사(1인 1등 1만원)

중악은빛 작은음악회

• 일시 :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 출연 : 선화여고 밴드부 연주, 동초제 판소리보존회, 트로트가수 외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본·말사